

한국학에서 집단전기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우경섭**

〈차 례〉

- 머리말
- 집단 전기의 두 가지 경향: 인물지(人物志)와 인물전(人物傳)
- 최근 북한의 집단전기학 동향: 『조선력사인물』의 체제 및 특징
- 맺음말

[국문초록]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2007년 이래 해외 각 지역에서 수행되는 한국학의 다양한 맥락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학술사의 재구성을 위한 지식인 집단에 대한 총합적 연구'라는 목표 아래 집단전기학(Collective Biography)이라는 방법론에 착목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 서양 학계에서 정립된 집단전기학은 개인들의 전기적 약전(略傳)을 수집하고 이를 나열하는 작업 및 그러한 전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특정 집단의 역사성을 포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부 엘리트들의 관념적 지향을 사회 변동의 추동력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통계와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를 돌이켜 보면 집단전기학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생소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기록의 나라'라 칭해지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집단전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첫째, 인명록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인물군 전체의 정보를 망라하려 시도한 인물지(人物志), 둘째, 편찬자의 주관적 판단 아래 특정한 이념 및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추려내어 수록한 인물전(人物傳)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22S1A5C2A02092184) 및 인하대학교(68868-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한편 근대 이후 성립된 위인전집류 또한 수록 인물의 선정 과정 및 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찬자의 역사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서 및 인명록 등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집단전기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집단전기학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 혹은 시대, 예컨대 해방 이후 북한학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접근 방식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예로서 2011년 간행된 『조선력사인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주의 역사 서술의 출발점인 계급성에 더하여 자주성으로 규정되는 민족 담론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체사상 성립 이후 북한 역사학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이 여러 인물들의 전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최근 서양 학계의 집단전기학 연구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물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기반하여, 지배층 위주의 사례 연구에서 일반 대중을 포괄하는 계량적 분석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집단전기학 역시 디지털 인문학과의 결합을 통해 20세기 이후의 서구중심적 근대주의와 같은 지배적 담론 및 이데올로기의 계보 아래 구성되어 온 기존 역사 서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집단전기학, 한국학, 인물지(人物志), 인물전(人物傳), 『조선력사인물』

1. 머리말

필자가 속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지난 2007년 이래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에서 수행되는 한국학의 다양한 맥락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학술사에 주목하여 다음 두 종의 책을 간행한 바 있다. 첫째는 중국 연변 지역 한국학 관련 학자들의 학문 역정을 정리한 『연변학의 선구자들』이고, 둘째는 일본 제국대학 출신 조선인 유학생 1천 명의 행적을 추적한 『제국대학의 조센징: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다.¹⁾

두 책 모두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20세기 동아시아 격변기에 형성된 한국학의 학술사적 기원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데 두어졌다. 지금까지 한국학의 역사는 주로 한국(남한)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일국사적 맥락 속에서 서술되어 왔지만, 이들 책은 한국 이외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각 지역의 역사적

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연변학의 선구자들』, 소명출판, 201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연변학의 선구자들』 II, 소명출판, 2017;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휴머니스트, 2019.

경험에서 연원한 또 다른 한국학들이 일찍부터 형성되었고, 일방적인 전파-수용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던 현실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복수(複數)의 한국학’이라는 고민 속에서 각 지역 고유의 한국학 학술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학 연구자 집단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을 떠나 만주에 정착한 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문화대혁명 등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수립한 연변 지역의 한국학, 그리고 멀리받는 ‘조센징’으로서 제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편입되었던 부류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한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들 개개인의 일상 체험과 당대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를 절감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소는 ‘동아시아 학술사의 재구성을 위한 지식인 집단에 대한 총합적 연구’라는 목표 아래 집단전기학(Collective Biography)이라는 방법론에 착목하게 되었다. 집단전기학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들의 전기적 약전(略傳)을 수집하고 이를 나열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는 관직·직업·학력 등을 포함한 각종 명단 또는 계보를 작성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집단의 전기(傳記)를 편집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전기 자료를 분석하여 그 집단의 역사성을 포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²⁾

이 글은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수행 중인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인물사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전해지는 조선시대 자료를 중심으로 II장에서는 먼저 집단전기 자료의 성격을 인물지(人物志)와 인물전(人物傳)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집단전기학의 초보적 사례 중 하나로서 북한에서 출간된 위인전집류인 『조선력사인물』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한국학계에서 집단전기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는 나종일의 글이 유일한 듯하다. 서양의 집단전기학에 관한 이 글의 서술은 전적으로 나종일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나종일, 「집단전기학」, 『서양사연구』7, 한국서양사연구회, 1985(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비평사, 1992 재수록).

2. 집단전기의 두 가지 경향 : 인물지(人物志)와 인물전(人物傳)

최근 들어 인간을 배제한 새로운 역사학들이 출현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서술과 평가는 여전히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 동아시아의 경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열전(列傳)을 독립시킨 뒤부터 개인에 대한 입전(立傳)은 역사학의 기초이자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고, 서양에서는 고대 이래 교회의 성인전(聖人傳: Hagiography)이 인물사 서술의 중요한 유형으로 등장했다.³⁾

하지만 그러한 전통이 근대적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 정립된 것은 대략 20세기 전반이라 할 수 있다. 나중일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집단전기학은 전기 자료의 수집과 편찬을 넘어 방대한 전기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찰스 베어드(Charles Beard)와 영국의 루이스 네이미어(Lewis B. Namier)의 연구가 그 출발점이었다. 베어드는 1913년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을 통해 헌법 제정에 관계한 사람들의 개별 정보를 분석하여 거기에 반영된 경제적 이해관계에 주목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자유·정의·복지와 같은 추상적 이념을 추구한 전체 인민(The Whole People)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종래의 관념적 해석을 비판하려는 의도라 평가된다.

그 뒤를 이어 네이미어의 1929년 『조지 3세 시대의 정치구조(*The Structure of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III*)』 역시 정파적 이데올로기에 치중했던 전통적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조지 3세 시대 하원의 구성과 실제 운

3) Hagiography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성인의 초월적 삶과 신이한 행적을 찬미한 전기물로, 현대어로는 ‘칭송 일색의 전기’라 풀이된다. 한국사에서 Hagiography 개념은 노관범이 조선시대 도통 의식 아래 편찬된 연원록(淵源錄) 계통의 사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바 있다.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 -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242-243쪽. 한편, 최근 서양학계의 전기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마은지, 「역사적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서유럽 전기 연구의 사례와 현황」, 『승실사학』 36, 승실사학회, 2016 참조.

용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미어는 출신 가문과 인척 관계를 비롯해 직업·재산·학벌 등 의원 개개인의 전기적 정보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개인의 삶 전 분야에 걸친 유대와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이 펼친 의회 활동을 분석했다. 그리고 토인비가 네이미어의 연구를 집단전기학(Prosopography)이라 명명함으로써, 역사학계에서 하나의 특정한 방법론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⁴⁾

어떤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전기적 정보의 집적과 분석에 의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보았던 집단전기학의 문제의식은 무엇보다 역사의 주체를 몇몇 영웅이 아닌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주목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한 일부 엘리트들의 관념적 지향을 사회 변동의 추동력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통계와 분석에 기반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사학계를 돌이켜 보면 사실 집단전기학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생소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특히 개인의 일생을 담은 전기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전해지는 조선시대를 예로 든다면, 개인의 가문 및 지역 정보를 담은 족보와 호적 그리고 과거 급제자 명단인 방목(榜目) 등을 활용한 사회사 연구, 홍문록(弘文錄)을 비롯한 관료들의 인명록을 분석한 정치사 연구, 문인록(門人錄)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상사 연구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어 왔다.

다만 집단전기학의 방법론이 (1) 전기 자료의 수집과 편찬, (2) 전기 자료 분석에 기반한 집단의 역사성 포착 등 두 가지 성격을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전자가 사료를 모아 정리하는 단계라면, 후자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사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연 전자의 작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4) 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322쪽.

즉 현재까지 전해지는 전기 자료의 종합적 정리가 여전히 절실하다고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한국고전총간 전기류(傳記類)의 경우, 그간 접근과 활용이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 전기 자료들의 집성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대적 학술 방법론으로서 집단전기학(Prosopography) 자체보다는, 우선 그 토대로서 집단전기 자료의 분류 및 활용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건대, 집단전기 자료들은 첫째, 인명록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인물군 전체의 정보를 망라하려 시도한 인물지(人物志)와 둘째, 편찬자의 주관적 판단 아래 특정한 이념 및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추려내어 수록한 인물전(人物傳)으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지(志)란 단순히 기록(識)한다는 의미다.⁶⁾ 지금의 역사학은 사료의 ‘객관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지만, 적어도 편찬의 태도에 있어서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을 망라하려 시도했던 사료들은 특정한 신념 아래 사실들을 선별 취합한 사료들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傳)이란 지(志)에 비해 저자 또는 편자의 주관이 한층 깊숙이 담겨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적을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인물지와 유사하지만, 어떤 인물을 기록에 담을지 선택하는 과정부터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한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대한 전달(傳事)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 부여(寓意)가 인물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⁷⁾ 전통적

5)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간행된 24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2책: 列聖誌狀通紀·世子行蹟·宗班行蹟, 3-9책: 國朝人物考, 10-11책: 人物考(沈晉賢), 12책: 嶺南人物考(蔡濟恭), 13책: 國朝人物志(安鍾和), 海東名臣錄(金瑄), 14책: 海東名將傳(洪良浩), 高麗名臣傳(南公轍), 15책: 海東名臣誌狀輯略(任天常), 16-17책: 國朝名臣言行錄(宋成明), 18책: 名臣錄(正祖), 19책: 國朝名臣言行錄 刪補本(朴性陽), 20책: 昭代名臣行蹟(鄭道應, 1618~1667), 群豹一斑(金勇), 重釐韓代崧陽者舊傳(金澤榮), 21-23책: 東儒師友錄(朴世采·李世煥), 24책: 涇東淵源錄(宋秉瑨), 國朝儒先錄(柳希春).

6) 金鍾秀, 『夢梧集』, 「弘文館志跋」 “志者, 識也. 識其事而已.”

7) 李裕元, 『林下筆記』 권2, 「瓊田花市編」 “字書云, 傳者, 傳也. 紀載事蹟, 以傳於後世也. 自漢司馬遷作史記, 創爲列傳, 以紀一人之始終, 而後世史家卒莫能易. 嗣是山林里巷, 或有隱德而不彰, 或有細人而可法, 則皆爲之作傳, 以傳其事寓其意.”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물지는 유취(類聚)한 것이고, 인물전은 정선(精選)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모든 전기 자료를 개인 정보에 대한 취합을 의미하는 인물지와 개인에 대한 역사적 포괄을 목적으로 하는 인물전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어떤 범주에 속한 개인 전체를 포괄하는 기록인지, 아니면 특정한 가치 판단 아래 대표적 인물들을 선별해 수록한 자료인지는 대략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왕실의 가보(家譜)라 할 수 있는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역대 국왕 및 왕비의 행록(行錄)·행장(行狀)·지문(誌文)·고문(誥文)·책문(冊文)·악장(樂章)·제문(祭文)·공신록(功臣錄) 등을 모아놓은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왕자 및 공주와 옹주들의 비문을 엮은 『종반행적(宗班行蹟)』 등이 왕실과 관련된 핵심적 인물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초 이래 재상을 비롯한 고위 관직자들의 명단을 수록한 『국조상신록(國朝相臣錄)』, 역대 공신들의 행적을 담은 『국조공신록(國朝功臣錄)』, 주요 관직의 역임자 및 사전(祀典) 대상자를 수록한 『청선고(淸選考)』, 사가독서(賜暇讀書)한 인물들의 명단인 『국조호당록(國朝湖堂錄)』을 비롯하여 『국조상훈록(國朝相勳錄)』·『국조취선(國朝彙選)』·『명세총고(名世叢考)』 등이 대표적인 고위 관료 중심의 인물지다.

또한 관안(官案) 또는 좌목(座目)과 같이, 특정 관직에 추천되거나 재직했던 인물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기록한 자료들도 빼놓을 수 없다. 관직별 역임자들을 망라한 각종 선생안(先生案)과 제명기(題名記)가 대표적이며, 특히 조선시대 사림정치의 성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홍문관원 선발의 과정을 보여주는 『등영록(登瀛錄)』과 『영선고(瀛選考)』는 전형적인 집단전기 자료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조두록(俎豆錄)』·『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황단배향제신목록(皇壇配享諸臣目錄)』 등 국가 사전(祀典) 관련 기록 또한 정치사상사 영역의 중요한 인물지들이다. 한편 지방사족의 명단인 향안(鄉案)·향신록(鄉紳錄)·청금록(靑衿錄) 종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단위로 편찬한 인물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각 문중에

서 편찬한 족보류 및 개인의 연보(年譜)와 실기(實記) 등 가승류(家乘類)도 훌륭한 집단전기학의 기초 자료라 할 만하다.

한편, 인물전의 경우도 수록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위인전 형태인 명신전(名臣傳) 또는 명장전(名將傳)이 대표적 유형이다. 이러한 계통의 자료로는 김육(金堉: 1580-1658)의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부터 시작하여, 송징은(宋徵殷: 1652-1720)과 송성명(宋成明: 1674-1740) 부자의 『국조명신언행록(國朝名臣言行錄)』, 이존중(李存中: 1703-1761)의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이 있다.⁸⁾ 그리고 이는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된 종합 인물지인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를 거쳐 약 3,000명의 정보를 담은 1909년 안중화(安鍾和, 1860~1924)의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까지 이어진다.⁹⁾

아울러 전란 또는 정치적 사건에서 목숨을 파친 이른바 순절인(殉節人)들의 목록인 절의록(節義錄)·충렬록(忠烈錄)·피화록(被禍錄) 역시 정치·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기묘사화 피화인에 대한 기록인 김육의 『기묘록(己卯錄)』을 비롯하여,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인물들을 모은 『강도충렬록(江都忠烈錄)』, 홍경래 난 때 반란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인물들을 수록한 『가산순절록(嘉山殉節錄)』, 그리고 양란을 전후한 시기 대명의리(對明義理)의 수호자들을 집록한 황경원(黃景源)의 『명배신고(明陪臣考)』 등이 있다. 아울러 충·효·열 등 도덕 실천의 모범으로 추앙할 만한 인물들을 모은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과 같은 삼강록(三綱錄) 계열의 전기들은 조선후기에 들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편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조정의 고관대작이 아닌 일반인들의 행적을

8) 우정임, 「金堉의 海東名臣錄·國朝名臣錄 편찬과 사상적 의미」, 『영남학』 3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김범,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의 내용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9) 한미경, 「인물고와 국조인물고의 비교 고찰」, 『서지학연구』 87, 한국서지학회, 2021; 한미경, 「國朝人物志 인용서적록 분석」, 『서지학연구』 89, 한국서지학회, 2022.

대상으로 삼은 인물전이라는 각도에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각 학파의 주도로 편찬된 사우록(師友錄)·문인록(門人錄)·연원록(淵源錄) 계통의 인물지는 사림 형성 이후의 학문적 네트워크 및 도통론의 강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할 만하다.¹⁰⁾ 주희(朱熹)의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의 영향 아래 출현한 이들 인물지는 16세기 학문적 동류의식을 표방한 김중직·김굉필·정여창 문하의 문인록에서 시작하여, 퇴계학파(退溪學派)의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남명학파(南溟學派)의 『덕천사우연원록(德川師友淵源錄)』, 사계학파(沙溪學派)의 『사계신독재양선생문인록(沙溪愼獨齋兩先生門人錄)』 등 도통론에 입각한 별도의 저술로 정리되기에 이르며, 개인 문집에 수록된 문인록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16세기 후반~17세기에 걸쳐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 오희길(吳希吉: 1556-1625)의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과 같이 조선의 유교 전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 시도한 저술들이 출현했다.

특히 집단전기 자료와 관련하여 18-19세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이 편찬한 사찬(私撰) 인물전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전의 관찬 혹은 학파 주도의 인물전들이 주로 사대부 계층을 대상으로 삼았던 데 비하여, 이때의 사찬 인물전들은 중인과 하층민을 비롯하여 여성 및 귀화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입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만하다. 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남기기 어려웠던 소외된 계층의 삶을 복원하는 데 집단전기학이라는 방법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받은 자료는 이규상(李圭象: 1727-1799)의 『병세재언록(并世才彦錄)』으로, 18세기 262인의 전기가 수록된 이 책에는 유림(儒

10) 김태연, 「학안에서 철학사로: 조선유학사 서술의 관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학연구』 2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0;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林)·고사(高士)·문원(文苑) 등 사대부들 뿐 아니라 역관과 여성 그리고 귀화 한인(漢人)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음이 특이하다. 그 뒤를 이어 19세기에 들어서는 서얼을 비롯한 중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서술한 인물전이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는데,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거지·기생·노비·상인·도둑 등 하층민 71인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소개한 『추재기이(秋齋紀異)』를 비롯해, 1844년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이 여항인(閩巷人) 42인의 전기를 모아 편찬한 『호산외기(壺山外記)』, 1858년 달서정사(達西靜舍)에서 국초 이래 서얼 관련 주요 법조문 및 사건 그리고 주요 인물의 전기를 모아 펴낸 『규사(葵史)』, 1862년 유재건(柳在建: 1793-1880)이 학문과 문장, 기예와 덕행을 갖춘 중인 이하 인물 300여 명을 수록한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1866년 이경민(李慶民, 1814~1883)이 역사에서 이름이 잊혀진 기예인과 여성 등 86인의 전기를 엮은 『희조일사(熙朝軼事)』 등이 있다. 아울러 영조 연간까지 사대부 191명의 행적에 덧붙여 「부인 사적(婦人事蹟)」이라는 항목 아래 사대부가 부인 20명의 일화를 수록한 『좌계부담(左溪哀譚)』, 중인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441명의 전기를 수록한 『진휘속고(震彙續攷)』, 그리고 사대부부터 천민까지 1,000여 명의 인물을 주제별로 다룬 『진별휘고속편(震閥彙攷續編)』 등, 최근 사찬 인물지에 대한 발굴 및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¹¹⁾

또한 명칭교체기 조선으로 건너온 귀화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황명유민전(皇明遺民傳)』, 그리고 왕덕구(王德九, 1788~1863)의 『황조유민록(皇朝遺民錄)』 등은 조선시대 이민자들의 삶과 중화주의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다.¹²⁾

11) 정옥자, 『조선 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97-116쪽; 진재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 - 지식·정보의 集積과 分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정은진, 「장지연전서 소재 진휘속고(震彙續攷) 고찰」, 『태동고전연구』 51, 2023; 권기중, 「인물지를 통해 본 19세기 지식인의 사유방식 - 진별휘고속편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1, 2023.

12)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123-131쪽.

3. 최근 북한의 집단전기학 동향 : 『조선력사인물』의 체재 및 특징

앞 장에서 언급했듯, 집단전기학이라는 개념은 (1) 전기 자료의 수집과 편찬, (2) 전기 자료 분석에 기반한 집단의 역사성 포착 등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한다. 특히 근대적 학술 방법론으로서 후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자에 해당하는 집단전기 자료들은 다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인물군 전체의 정보를 망라하려 시도한 인물지(人物志)와 특정 이념 및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추려내어 수록한 인물전(人物傳)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살펴볼 집단전기의 또다른 유형은 근대 이후 성립된 '위인전집류'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전기 자료는 입전 대상 인물의 선정과 서술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주류적 사상 지향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예컨대 해방 이후 집집마다 한 질씩 소장했던 위인전집류들이 대부분 국민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거나 근대문명 발전에 공헌한 백인들의 전기로 구성되었음을 감안하면,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구중심적 근대주의에 편향되었던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들 위인전집류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을 독자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그것이 가지는 현실적 영향력은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집단전기학 연구를 능가할 듯하다.¹³⁾

개별 인물의 전기(Biography)들 가운데 일정한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글들을 선별하여 묶은 위인전집류는 말 그대로 집단전기(Collective Biography)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히 수록 인물의 선정 과정 및 그들에 대한 포품을 통해 편찬자의 역사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서 및 인명록 등 원형 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한 전형적 집단전기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13) 20세기 전반 한국의 위인전집류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임유경, 「조선 후기 역사·전기문학의 후대 계승: 근대계몽기 인물기사와 관련하여」,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 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 - 『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 」,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허혜선, 「해방공간의 출판계와 위인전」, 『역사연구』 30, 역사학연구소, 2016.

집단전기학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편찬을 담당한 특정 집단이 어떤 유형의 인물들을 어떻게 ‘위인’으로 만들어 내는지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공통된 역사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인전집류가 지닌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집단전기학적 방법론은 충분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혹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역 혹은 시대—예컨대 앞서 언급한 연변 지역 또는 해방 이후 북한학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일차적 접근 방식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자료가 2011년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역사인물』(이하 ‘본서’로 약칭함)이라는 위인전집이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1권은 고조선에서 고려시대까지 47명, 2권은 조선 전기의 40명, 3권은 조선 후기 및 일제 강점기 초반까지 34명 등 모두 121명의 전기가 집록되어 있다.

본서의 편찬에 간여한 인물로는 리명숙(집필), 박사 위광남(심사), 부교수 주성철(심사) 등 3명이 기재되어 있다. 리명숙과 위광남의 이름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북한역사학논저목록』의 색인에 보이지 않으나, 위광남은 2010년 완간된 조선단대사 중 『리조사』 11권(갑신정변~갑오개혁)의 단독 집필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주성철은 「1771년 신문고의 재설치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확인되며, 역시 『리조사』 5권(17~19세기 통치제도, 신분제도, 군사제도)의 공동 집필자이자 1·6·7권의 심사자인 점으로 미루어 모두 조선시대사 연구자로 추정된다.¹⁴⁾ 그리고 금성청년출판사는 주로 청소년 대상의 교육서적을 펴낸 곳으로, 1982년 『조선 공산주의 청년운동사』가 주목된다.

주지하듯,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는 북한 역사학계가 직면한 과제는 식민잔재와 한국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주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현실적 목표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었다.¹⁵⁾ 따라서 시대구분 논쟁을 바탕으로 통사

14) 주성철, 「1771년 신문고의 재설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4-2.

15)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북한 역사학의 동향에 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류의 편찬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대표적 결과물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출판한 『조선통사』 상(1956)·하(1958)였다. 이 과정에서 논쟁의 핵심은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격의 규정에 두어졌고, 개별 인물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듯하다. 다만 근대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적 인물들, 예컨대 정약용(최익한, 『실학과 정다산』, 국립출판사, 1955), 박지원(김하명, 『연암 박지원』, 국립출판사, 1955), 김옥균(『김옥균』, 1964) 등에 대한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¹⁶⁾

본격적인 위인전집류로는 우선 1956년 조선후기 홍양호의 저술인 『해동명장전』의 번역본(국립출판사)과 안흥기가 편집한 『우리 나라 명인들의 이야기』(조선로동당출판사)이 눈에 띄인다.¹⁷⁾ 그리고 1962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에서 78명의 약전을 모아 편찬한 『조선의 명인』(과학원출판사)은 무엇보다 리지린·김석형·채희국·손영중·림건상·홍기문·김광진·장국중·홍희유 등 북한 학계를 이끌었던 학자들이 대거 필진에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수록 인물 중 임성주를 제외한 나머지 77인이 모두 『조선력사인물』(2011)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 북한의 집단전기학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성과라 할 만하다.¹⁸⁾ 그리고 1964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의 한국사 서술 동향과 분석』, 국사편찬위원회, 1989;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I·II, 한길사, 1990; 역사문제연구소 편,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199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역사학 논저 목록』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2001;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의 학문세계』 상·하, 신인, 2009.

16) 북한 역사학계의 정약용과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에 수록된 조성을과 조재곤의 글 참조.

17) 『우리나라 명인들의 이야기』에 수록된 10인의 인물 및 필자는 다음과 같다. 을지문덕(채희국), 강감찬(리용중), 박연(박경수), 리순신(김사익), 박지원(김하명), 김홍도(김용준), 정약용(리형일), 김정호(최익한), 전봉준(안통태), 주시경(김수경).

18) 『조선의 명인』에 수록된 78인의 인물 및 필자는 다음과 같다. 리옥(리지린), 성기(리상호), 박제상(리용중), 우륵(문종상), 을지문덕(김유방), 담징(박문원), 솔거(한상진), 김유신(석인해), 연개소문(김유방), 설총(류창선), 김생(김무삼), 박한미(박문원), 장보고(리지린), 최치원(리용수), 서희(리용중), 강감찬(김준진), 의천(김석형), 김부식(채희국), 땅이(손영중), 리규보(한용옥), 일연(한용옥), 배중손(김재홍), 리제현(석인해), 최무선(최길성), 문익점(최진순), 정도전(김홍길), 리천(한영길), 로중례(홍순원), 박연(문하연), 량성지(박태훈), 김시습(최시학), 최세진(류렬), 서경덕(최봉익), 서산대사(림건상), 리상좌(황욱), 신사임당(문봉우), 권문해(리환필), 정철(류수), 리이(정진석), 허준(리필근), 리순신(계정희), 림제(리철화), 광재우(양형섭), 박인로(류창선), 허란설현(류수), 리수광(김사익), 김응서(김세익), 허균(신구현), 정문부(강석준), 윤선도(김하명), 류

년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21명의 여성 전기를 모은 『력사에 이름 난 여성들』(조선여성사)가 간행되었고,¹⁹⁾ 이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100여명의 전기를 모은 『조선력사인물』이 편찬되었는데, 이 글에서 분석의 저본으로 삼은 책은 ‘주체 100년’(2011)을 기념하여 개정된 판본인 듯하다.

1970년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이 등장한 뒤로,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는 크게 (1) 혁명역사(조선노동당사, 김일성혁명역사, 김정일혁명역사, 김정숙혁명역사 등), (2) 일반역사(조선역사: 고대사, 고구려사, 발해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와 세계역사로 재편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북한 역사학계는 ‘혁명역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일반역사’에서는 계급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의해 왜곡돼 온 민족사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체계화”하기 위하여, ‘원시사회의 발전 과정과 조선 사람의 기원, 고조선과 노예제 사회의 성립, 삼국의 사회경제구성체에 관한 문제와 봉건화 과정,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과 부르주아 개혁운동’ 등이 중심 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한 성과가 1980년대 초반까지 『조선전사』 34권 및 『조선부문사』 60권으로 정리되었는데,²⁰⁾ 『조선력사인물』은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역사 인식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추정된다. 즉 『조선력사인물』의 서술 체재 및 내용은 1980년대 초반 이른바 주체사관 확립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조선전사』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자주성·계급성·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본서 전체에 걸쳐 관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의 편찬 의도는 권두에 수록된 편집부 명의의 「책을 내면서」에 밝혀져

형원(변락주), 박세당(탁운한), 김만중(신구현), 정선(한상진), 정상기(목영만), 리익(최진순), 임성주(최봉익), 신경준(김영형), 안정복(홍기문), 홍대용(최진순), 박지원(김하명), 박제가(김광진), 신윤복(한상진), 김홍도(김용준), 정다산(장국중), 홍경래(홍희유), 김정희(전주농), 최한기(김창원), 김정호(목영만), 리제마(량진홍), 류린석(전석담), 장승업(김용준), 김육균(립만·지덕봉), 전봉준(오길보), 홍범도(오길보), 주시경(정렬모), 안중근(김덕호), 신채호(홍기문).

19) 허윤, 「포스트 한국전쟁기 북한의 여성 위인전: 『력사에 이름 난 여성들』, 조선여성사, 1964, 『근대서지』 23, 근대서지학회, 2021.

20) 김광운, 「북한 역사학계의 구성과 활동」,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47-48쪽.

있다. 주체사상 성립 이후 대부분 간행물에서 볼 수 있듯이, 본서 역시 “우리 인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주의가 생기고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강렬한 민족주의적 문제의식 아래 인물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방하고 있다.²¹⁾

세계에는 자기 민족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민족처럼 인류의 발생기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민족은 드물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였으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었다. 그리고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백두대산줄기로 잇닿은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용감히 맞서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명예를 건결히 고수하였으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반동적통치배들과의 대중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이와 함께 일찍이 인류문명의 려명기부터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 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랑찬 전통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세 권으로 이루어진 전체적 구성을 설명하며, 1권은 “고조선으로부터 세나라시기(삼국시대)와 고려에 이르는 고대 및 중세”, 2권은 “리순신 · 광재우 · 김응서” 등 “리조의 건립으로부터 임진조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의 명장들과 그밖의 명인”, 3권은 “사회적 진보에 기여한 박지원 · 홍대

21) 『조선력사인물』에 투영된 이같은 민족주의적 성향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했던 1960년대의 문제의식과 대비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연구소, 『조선의 명인』, 과학원출판사, 1962, 2쪽.

용·김정호 등 이름있는 학자들”과 “리준·안중근·안병찬 등 3·1 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의 우국충신들”로 이루어졌음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펼쳐나갈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리라고 본다”는 말로써 편찬의 의도를 총결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총 121명의 인물을 편의상 군주·충신·장수·학자·문장가·기예인(기술자 및 예술가)·반란자(혁명가)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²²⁾ 군주 17명(14.0%), 장수 24명(19.8%), 충신 15명(12.4%), 학자 21명(17.4%), 문장가 19명(15.7%), 기예인 20명(16.5%), 반란자 5명(4.1%) 등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저항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반침략투쟁사가 강조되는 가운데 장수를 비롯한 전쟁 관련 인물의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예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군주들의 전기가 포함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또한 한국의 일반적인 위인전집류와 비교하여 문장가와 기예인이 다수 수록된 점은 계급성과 진보성의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주성을 인물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웅적 인물들을 부각시킨 반면, 사대주의라는 프레임 속에서 신라와 조선 지배층의 반동성을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의도임은 일찍부터 지적된 바이다. 우선 단군을 ‘민족사의 첫 건국시조’(1-1)로 규정한 첫 장에서는 단군이 평양에 도읍한 이래 3,000년 간 존속한 최초의 노예제 국가로서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주체 82년(1993) 확정된 단군릉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하며, ‘고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5011년 전에 태어난 단군에 의해 수립되었고, 단군릉 발굴을 통해 남들이 아직 원시시대에 머무를 때 우리 조상들은 벌써 국가를 이루고 문명한 생활을 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설명하며, 단군릉 발굴의 계기로서 일제

22) 『조선력사인물』에 수록된 121명의 명단 및 그들에 대한 전기의 제목은 말미의 부록을 참조할 것.

식민사학의 악영향을 언급한 김일성의 교시가 주목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역사가들에게 우리 민족사를 주제적 립장에서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일제의 의하여 여지없이 말살된 단군과 고대조선의 역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단군의 무덤을 발굴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중략)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령도에 의해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게 되었으며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인물이었던 단군이 일제에 의해 지워진 정황을 현재 한국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단군조선의 건국 시기가 자신들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것을 시기한 일제가 조선의 역사 기록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동당 시대에 들어와 단군의 유골을 발굴하고 그의 출생년대까지 과학적으로 밝혀냄으로써 평양이 인류의 발상지이자 조선민족 첫 국가의 발생지임이 확인되었고, 조선민족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임을 확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를 이어「동방강국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1-4), 「고구려의 국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광개토왕」(1-6), 「수나라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1-9), 「당나라를 전률케 한 연개소문」(1-11) 등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대사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강조한다. 반면「큰 나라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반한 김유신」(1-19)이라는 글에서는 신라인의 사대주의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 집권자들은 시종일관 령토확장 야망으로부터 제힘으로 는 강대한 고구려를 누를 수 없고 또 백제를 먹을 수 없게 되지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간의 정복전쟁을 벌려놓았으며 광대한 조상의 땅을 당나라에 섬겨마치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여 공정한 역사는 김유신을 치졸한 사대주의의 시조로, 민족반

역자로 낙인하고 있다.

김유신에 대한 이같은 서술은 주체사상 성립 이전의 평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7세기 중엽 백제 및 고구려에 비해 진일보한 신라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삼국의 통합을 위하여 활동한 신라의 애국 명장이며 탁월한 정치 활동가”라고 규정했던 『조선의 명인』의 역사관이 자주성과 사대주의 비판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민족의 반역자’로 역전되었음을 잘 보여준다.²³⁾

또한 조선시대에 대한 서술 역시 「고려왕권을 탈취한 이성계」(2-1)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왕조 교체의 역사적 발전성 대신 봉건적 퇴행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성계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정사를 철저히 명나라에 기울인 사대주의자였고 더욱이는 료동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인 원정을 통째로 망쳐놓은 최악의 장본인’이자,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무엇도 가림이 없이 고려의 수많은 귀족들과 왕씨 가문을 멸족시킨 최대의 폭군이었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끝없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그 결과 ‘475년의 오랜 기간 세계에 이름을 떨친 고려왕실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리조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북한학계의 조선시대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초반 이래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성립된 식민주의적 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출판된 『조선대외관계사』 3권의 서문이 이를 집약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우리 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리조봉건시기 통치배들은 사대주의를 하면서 파벌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에는 친중파 · 친러파 · 친일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파벌이 많았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이 파벌싸움을 일삼고 부패타락하다보니 결국 나

23)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 과학원출판사, 1962, 51-59쪽.

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일찍이 부르쥬아 혁명을 수행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갓쓰고 당나귀타고 다녔으며 앉아서 시나 읊고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공장을 건설하고 상품을 생산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옛날 그대로 농사나 지으면서 뒤떨어진 처지에 있었습니다.》

부패무능한 리조 봉건통치배들은 자기 손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제각기 과별싸움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책동하였다. 특히 일본과 서방자본주의 열강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야망을 품고 몰밀 듯이 끌어들이 불평등적인 국교관계의 수립을 강요해오던 시기에 리조 봉건통치배들은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사대주의, 외세의 존외교를 일삼다가 끝내는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외교로 위어진 조선 말기의 이러한 역사는 대외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대주의를 하면 곧 나라가 망한다는 진리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²⁴⁾

요컨대 조선시대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시종일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 없던 썩어빠진 양반통치배들의 협잡과 음모로 점철된 민족정신의 불모 시기’였다는 규정이다. 당쟁과 사대주의 및 그로 인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런 인식은 식민지 시기 이래 한국의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조선시대사 인식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은 「피의 교환을 남긴 고종」(3-24)에서 ‘조선 인민의 눈물과 저주로 얼룩진 이조 말기 고종의 통치 역사는 바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버리고 남의 등에 업혀 살려는 외세의 존은 곧 망국의 길이라는 피의 교환을 똑똑히 새겨주었다’는 평가까지 일관

24) 강석희, 『조선대외관계사』 3, 사회과학출판사, 2012, 4-7쪽.

되게 이어진다.

그리고 이같은 역사적 과오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16세기 서경덕 이후 유물론적 철학이 등장하여 이수광·이익·홍대용·박지원·박제가·정약용을 거쳐 최한기에 의해 완성되는 실학사상에 대한 서술이 중심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도 한국학계의 통설과 별반 차이가 없다.²⁵⁾ 1950년대 이래 북한 역사학이 전형적인 근대주의의 도식에 따라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입증하려는 의도 아래 실학사상의 체계화에 전력을 기울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 역시 기존의 통설을 충실히 따르며, 이들 실학자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력의 성장과 대내외적 상업의 변성을 추동한 진보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계급적 한계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봉건왕조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으로 이어진 결과, 낙후한 봉건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변혁하여 나라의 독립과 문명을 이룩하고자 부르짖어 정변을 단행한 김옥균과 같이 진보적·애국적 인사로 이어진다는 도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3-23 「갑신정변과 김옥균」)

그리고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으로 1) 개화와 상층의 계급적 한계로 인하여 혁명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기세를 보지 못한 점, 2) 반혁명세력의 폭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전술적 과오, 3) 일본의 배신과 청의 간섭 등 세 가지를 예시하며, 갑신정변 이후 반침략반봉건 투쟁의 주도세력으로서 ‘인민대중’의 출현을 지목했다. 그리고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홍경래」(3-14) 및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3-26)에 대한 서술 속에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 ‘농민전쟁’에 주목하며, ‘역사의 주체이며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크며 그들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창조성과 진보성과 관련하여 본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25) 1970년대까지 북한에서 이루어진 실학 연구는 남한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박광용, 「북한의 사상사 연구 동향」,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2, 136쪽. 한편 『조선력사인물』의 실학 담론에서는 한국학계에서 중시하는 정조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심지어 실학에 대한 반대자로 설명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본서의 「실학자이며 작가였던 박지원」(3-9) 참조.

점은 과학기술자와 예술인 그리고 문인들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술자로는 「봉덕사의 종을 주조한 박한미」(1-25), 「화약과 화약무기를 제조한 최무선」(1-46), 「주자법을 발명한 리천」(2-2), 「명의 로 증례」(2-9), 「4상의학의 창시자 리제마」(3-19)가 등장하며, 예술가로는 「고구려를 빛내인 담징」(1-10), 「거문고의 명수 백결」(1-20), 「이름난 화가 솔거」(1-21), 「명필, 서예가 김생」(1-22), 「가야금을 만들어낸 우륵」(1-24), 「중세의 음악가 박연」(2-3), 「노비로부터 기술자가 된 장영실」(2-6), 「한호의 글씨숨씨」(2-22), 「노비출신의 화가 리상좌」(2-29), 「풍경화가 정선」(3-6), 「풍속화가 김홍도」(3-10),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계승발전시킨 장승업」(3-22) 등이 전체 분량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19세기 말~20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인민대중의 항쟁으로 귀결되는 내러티브의 궁극적 목표가 서구적 근대라는 점에서, 이 책은 주체사상 출현 이후 북한 역사학이 직면한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주의 역사 서술의 출발점인 계급성에 더하여, 자주성으로 규정되는 민족주의 담론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정리되지 못한 고민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것처럼 해결되지 못한 모순 속에서 121명의 인물에 대한 서술은 선악의 명확한 구도 아래 자주성·계급성·진보성이라는 현재적 문제의 식만 드러날 뿐, 역사 속의 인간으로서 입체적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즉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을 법한 역사성이 몰각된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분석이 결여된 결과라 생각된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역사서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사실관계의 오류가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이다. 「선왕을 살해하고 왕자리에 오른 광해군」(3-3)이 대표적인 사례로, 광해군이 선조를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뒤 자객을 보내 대비를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한국학계에서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라 그 출처가 궁금해진다. 그리고 ‘력대 제왕들이 하나와 같이 저들의 봉건통치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연장하기 위해 폭정을 하였지만 광해군처럼 부모조차 모르고 광기를 부린 인물은 드물다’고 서

술하며 ‘왕관을 쓴 인간 추물’이라고까지 혹평했는데, 1930년대 이후 한국사의 통설로 자리잡은 ‘중립외교’ 등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비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학계에서 이미 폐기된 고산자 김정호의 일화들(3-17), 즉 홀로 전국을 답사하고 백두산에 여러 차례 올랐으며 결국 대원군에 의해 대동여지도의 판목이 압수되고 옥사했다는 이야기들이 교정없이 실려있음을 보면, 북한 역사학이 식민사학의 극복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4. 맺음말

연구자는 수천 명의 개인의 생애, 즉 전체 개미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대열이 여러 방향으로 뿔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의 개미들을 주시하되 그러면서도 결코 개미떼를 잊지 말아야 한다.²⁶⁾

20세기 초반 서양에서 확립된 집단전기학은 아직까지 한국학계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집단전기학에 대한 네이미어의 위와 같은 말을 음미해 보면 그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특히 ‘기록의 나라’라 칭해지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부하고 다양한 집단전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근대 이후 출현한 각종 인명록과 전기물까지 포함한다면 한국학에서 집단전기학 연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만하다.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한 집단전기학 연구는 우선 스스로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피지배 계층과 여성 및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이자, 북한학계와 같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및 시대

26) 나종일, 앞의 책, 329쪽.

에 대한 기초적인 관찰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도통론 혹은 20세기 이후의 서구중심적 근대주의와 같이 지배적 담론 및 이데올로기의 계보 아래 구성되어 온 기존 역사 서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2차대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계의 집단전기학 연구가 컴퓨터를 활용한 인물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배층 위주의 사례 연구에서 일반 대중을 포괄하는 계량적 분석으로 이행했던 사실은 현재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로의 전환에 직면한 한국학계에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 즉 여러 시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정보가 효율적으로 축적된다면, 이미 호적과 방목 등을 활용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던 사회경제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사상사 분야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해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6~17세기 영국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현저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종교 개혁을 전후한 시기 성직자들을 검토하여 세속사회 안에서의 종교적 급진주의의 근원을 밝힌 성과들은 사림(士林)이 중심을 이룬 조선시대 정치사상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²⁷⁾ 또한 아울러 2차대전 당시 평범한 대중들이 어떻게 홀로코스트에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추적한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의 저작도 한국사 연구에 적용해 볼 만한 훌륭한 집단전기학 성과라 생각된다.²⁸⁾

다만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몇가지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방대한 분량의 집단전기 자료에 대한 정리 작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II장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종류의 집단전기 자료들이 새로 간행·번역되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거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인 듯하다. 아울러 근대 이후 출현한 위인전집 등의 유형까지 망라한다면, 자료의 수집·

27) 나종일, 앞의 책, 337-353쪽.

28)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 『아주 평범한 사람들 - 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책과함께, 2023.

정리와 더불어 집단전기학이라는 방법론 및 범주에 대한 이론적 고민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축적된 집단전기 자료에 대한 효율적 DB 구축의 필요성이다. 이는 단순히 텍스트 입력 및 온라인 공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분량의 고전적들이 디지털화 되었지만, 내용에 대한 단순 검색을 넘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밀한 접근 방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글에서는 주로 독립된 저술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지만, 수천 종에 달하는 개인 문집에 대한 집단전기학적 접근 방식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즉 문집에 수록된 엄청난 분량의 편지글 및 행장(行狀)·묘지(墓誌)·제문(祭文) 등 묘도문자(墓道文字), 그리고 연보(年譜) 등의 수·발신 관계 및 핵심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연동됨으로써, 수많은 개인들의 관계망이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파악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의 한국사 서술 동향과 분석』, 국사편찬위원회, 1989.
 _____, 『북한역사학 논저 목록』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2001.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 과학원출판사, 1962.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비평사, 1992.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의 학문세계』 상·하, 선인, 2009.
 리명숙, 『조선력사인물』 1~3, 금성청년출판사, 2011.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I, 한길사, 1990.
 안흥기, 『우리 나라 명인들의 이야기』,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역사문제연구소 편, 『남·북 역사학의 17가지 쟁점』, 역사비평사, 1998.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변학의 선구자들』 II, 소명출판, 201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변학의 선구자들』, 소명출판, 2013.
 장국중·강석희, 『조선대외관계사』 1-3(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2012.
 정옥자, 『조선 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선징』, 휴머니스트, 2019.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 『아주 평범한 사람들 - 101 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책과함께, 2023.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2. 논문

-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2012.
 권기중, 「인물지를 통해 본 19세기 지식인의 사유방식-진벌회고속편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1, 2023.
 김범,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의 내용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김태년, 「학안에서 철학사로: 조선유학사 서술의 관점과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학연구』 23,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2010.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한국사상사학』 56, 2017.
 마은지, 「역사적 전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서유럽 전기 연구의 사례와 현황」, 『숭실사학』 36, 숭실사학회, 2016.
 박현순, 「國朝文科榜目の 편찬과 18세기 '인물정보학」, 『규장각』 5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우정임, 「金堉의 海東名臣錄·國朝名臣錄 편찬과 사상적 의미」, 『영남학』 3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윤영실, 「최남선의 수신 담론과 근대 위인전기의 탄생『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이영화,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 『한국사학사학보』 15, 한국사학사학회, 2007.

- 임유경, 「조선 후기 역사·전기문학의 후대 계승: 근대계몽기 인물기사와 관련하여」,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 정은진, 「장지연전서 소재 震彙續攷 고찰」, 『태동고전연구』 51, 2023.
- 진재교, 「조선조 후기 類書와 人物志의 學的 視野-지식·정보의 集積과 分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 한미경, 「인물고와 국조인물고의 비교 고찰」, 『서지학연구』 87, 한국서지학회, 2021.
- _____, 「國朝人物志 인용서적록 분석」, 『서지학연구』 89, 한국서지학회, 2022.
- 허윤, 「포스트 한국전쟁기 북한의 여성 위인전: 『역사에 이름 난 여성들』, 조선녀성사, 1964」, 『근대서지』 23, 근대서지학회, 2021.
- 허혜선, 「해방공간의 출판계와 위인전」, 『역사연구』 30, 역사학연구소, 2016.

부록: 『조선력사인물』 목차 및 인물 유형 (연번 및 유형은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임)

연번	제목	유형	연번	제목	유형
1-1	민족사의 첫 건국시조 단군	군주	1-25	봉덕사의 종을 주조한 박한미	기예
1-2	려옥과 《공후인》	시문	1-26	대려행가 해초	학자
1-3	고조선의 무관 성기	장수	1-27	학자이며 작가인 설총	학자
1-4	동방강국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군주	1-28	해동성국을 일떠세운 대조영	군주
1-5	백살로장 명림답부	장수	1-29	후기신라의 시인 최치원	시문
1-6	고구려의 국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광개토왕	군주	1-30	후백제를 세운 건원	군주
1-7	온달과 공주	장수	1-31	태봉국을 세운 궁예	군주
1-8	바둑왕 도립	기예	1-32	고려의 태조 왕건	군주
1-9	수나라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수	1-33	능란한 군사외교가 서희	충신
1-10	고구려를 빛내인 담징	기예	1-34	명장 강감찬	장수
1-11	당나라를 전률케 한 연개소문	장수	1-35	평양이 낳은 시인 정지상	시문
1-12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장수	1-36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학자
1-13	백제의 시조 온조	군주	1-37	전장의 꽃 설죽화	충신
1-14	충신 성충	충신	1-38	열정의 애국시인 리규보	시문
1-15	황산벌에서 최후를 마친 계백	장수	1-39	삼별초군과 배중손	장수
1-16	신라의 박혁거세	군주	1-40	명학소의 폭동군대장 망이	반란
1-17	나라의 명예를 지켜 목숨바친 박제상	충신	1-41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충신
1-18	우리 민족사의 최초의 여왕 선덕왕	군주	1-42	《삼국유사》를 남겨놓은 일연	학자
1-19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반한 김유신	장수	1-43	외교관이며 문인이었던 리제현	시문
1-20	거문고의 명수 백결	기예	1-44	외적과의 싸움에 한생을 바친 최영	장수
1-21	이름난 화가 솔거	기예	1-45	배원정책의 기치를 든 공민왕	군주
1-22	명필, 서예가 김생	기예	1-46	화약과 화약무기를 제조한 최무선	기예
1-23	청해진의 장보고	장수	1-47	고려왕조를 지키려던 정몽주	충신
1-24	가야금을 만들어낸 우루	기예			
2-1	고려왕권을 탈취한 이성계	군주	2-21	진주성싸움과 론개	충신
2-2	주자법을 발명한 리천	기예	2-22	한호의 글씨솜씨	기예
2-3	중세의 음악가 박연	기예	2-23	바다싸움의 명장 리순신	장수
2-4	력사에 이름을 남긴 세종왕	군주	2-24	우국충신 조현	충신
2-5	훈민정음창제에 기여한 정린지	충신	2-25	평양의 명기 개월향	기예
2-6	노비로부터 기술자가 된 장영실	기예	2-26	너류시인 황진이	시문
2-7	지리지를 편찬한 학자 망성지	학자	2-27	림제와 《재판받는 쥐》	시문
2-8	사육신과 생육신	충신	2-28	대사 사명당	장수
2-9	명의 로중례	기예	2-29	노비출신의 화가 리상좌	기예

2-10	북방수비를 강화한 김종서	장수	2-30	홍의장군 광재우	장수
2-11	《금오신화》와 김시습	시문	2-31	애국시인 박인로	시문
2-12	간신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남이	장수	2-32	재능있는 녀류시인 허란설현	시문
2-13	중세기 유물론적철학자 서경덕	학자	2-33	한생을 외적과의 싸움에 바친 김응서	장수
2-14	력대의 폭군이었던 연산군	군주	2-34	북관의 의병장 정문부	장수
2-15	중세녀류화가 신사임당	기예	2-35	행주산성싸움과 권륜	장수
2-16	종살이군시인 어무적	시문	2-36	실학의 선구자 리수광	학자
2-17	승의병대장 서산대사	장수	2-37	청석골대장 림격정	반란
2-18	언어학자 권문혜	학자	2-38	허균과 《홍길동전》	시문
2-19	10만양병설을 주장한 학자 리이	학자	2-39	시인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권필	시문
2-20	국문시가발전에 기여한 정철	시문	2-40	국문시조의 경지를 개척한 윤선도	시문
3-1	허준과 《동의보감》	학자	3-18	지리, 지도학자 김정호	학자
3-2	울릉도를 지켜낸 안룡복	충신	3-19	4상의학의 창시자 리제마	학자
3-3	선왕을 살해하고 왕자리에 오른 광해군	군주	3-20	애국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반일의병장 최익현	장수
3-4	생물학자 박세당	학자	3-21	13도의병도총재 류린석	장수
3-5	국문소설작가 김만중	시문	3-22	조선화의 전통적 화법을 계승발전시킨 장승업	기예
3-6	풍경화가 정선	기예	3-23	대원군과 민비	군주
3-7	실학자 리익	학자	3-24	갑신정변과 김옥균	반란
3-8	자연과학에 뜻을 두었던 흥대용	학자	3-25	피의 교훈을 남긴 고종	군주
3-9	실학자이며 작가였던 박지원	학자	3-26	봉이 김선달	기예
3-10	풍속화가 김홍도	기예	3-27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반란
3-11	나라를 위해 한생을 바친 박제가	학자	3-28	조선의 일을 보여준 리준	충신
3-12	실학의 대표적 인물 정약용	학자	3-29	의병대장이며 독립군대장인 홍범도	장수
3-13	생활의 시인 김려	시문	3-30	애국적인 어학자이며 교육자인 주시경	학자
3-14	금석학자 김정희	학자	3-31	이토를 쫓아낸 열사 안중근	충신
3-15	평안도농민전쟁의 지휘자 홍경래	반란	3-32	매국역적을 처단하려 했던 리제명	충신
3-16	다재다능하였던 시인 조수삼	시문	3-33	애국변호사 안병찬	충신
3-17	방랑시인 김삿갓	시문	3-34	력사가, 작가인 신채호	학자

The Potential of Prosopography in Korean Studies

WOO, Kyungsup*

This article was written as part of the “Prosopography of Overseas Korean Studies for Deepening and Diffusing East Asian Koreanology” project, currently being carried out by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Inha University. Since 2007,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as been exploring various contexts of Korean studies conducted overseas. In the process,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as focused on the methodology of collective biography under the goal of “comprehensive research on intellectual groups for the reconstruction of East Asian scholarly history.”

Collective biography, which was established in Western academia in the early 20th century, involves the collection and listing of biographical sketches of individuals, and analyzing these biographical materials to captur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 particular group. This methodology moves away from traditional historical narratives that regarded the ideological orientations of a few elites 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change. Instea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nalyze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based on statistics and analysis of the practical relationships of a broader range of people.

Although the term “collective biography” is relatively unfamiliar in Korean historiography, this awareness of the issue and the methodology itself are not entirely absent. Even in the Joseon Dynasty,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a “country of records,” there is a wealth of diverse collective biographical materials. These material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first, the “Inmulji” (人物志),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which attempts to comprehensively cover the information of all individuals belonging to a certain category, similar to a directory; and second, the “Inmuljeon” (人物傳), which selects and records individuals based on certain ideologies and criteria according to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compiler.

Meanwhile, the biographies of great figures compiled in the modern era also offer a different dimension of collective biography.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individuals and evaluating them, these compilations reveal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compiler, providing a contrast to the typical collective biography that is based on raw data such as documents and directories. These materials can serve as a primary approach to regions or periods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or are difficult to research, such as North Korean studies after 1945. For exampl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Historical Figures of Korea* published in 2011 reveals the unresolved dilemmas faced by North Korean historiograph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Juche ideology, where it was necessary to combine the discourse of nationalism, defined by autonomy, with the class-based perspective that i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ist historical narratives.

Recently, Western academic research on collective biography has transitioned from case studies focused on the ruling class to quantitative analyses encompassing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computerization of biographical data. In this context, collective biography in Korea, when combined with digital history,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historical narratives that have been structured under dominant discourses and ideologies, such as Western-centric modernity in the 20th century.

Key words : Prosopography, Collective biography, Korean Studies, Inmulji(人物志), Inmuljeon(人物傳), *The Historical Figures of Korea*([®]조선력사인물)